

연초부터 거센 외국영화 공습... 기대작 4편

거대 자본 바탕 기술력·완성도 높여 한국 관객 집중 공략



영화 '블랙 팬서'·'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의 한 장면.

지난해는 3년간 외국영화 관객이 가장 많았던 시기다(1080만명 점유율 48.2%). 연말 '강철비'(12월31일 기준 401만명) '신과 함께'(853만명) '1987'(194만명)의 분전이 없었다면, 아마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영화를 본 관객 비율이 50%를 넘겼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최근 외화들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력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편 더 다양한 소재를 영화 안으로 끌어들이며 한국 관객을 집중 공략 중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연초부터 대작 외국영화들이 줄줄이 한국 관객을 찾는다. 극강의 오락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마블의 새 슈퍼 히어로 영화가 개봉을 앞뒀고, 오는 3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 종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들도 한국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한 인상적인 전쟁 영화 한 편도 있다.

◇ 최강 오락영화.. '블랙팬서'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이 기다리는 작품이 아닐까.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블랙팬서'(감독 라이언 쿨러)를 향한 기대감은 개봉 한 달여를 앞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작품은 올해를 통틀어 가장 기대를 모으는 영화인 어벤저스:인피니

티 워(6월4일 개봉)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도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2016)를 본 관객이라면 검은 표범 마스크를 쓴 영웅을 기억할 것이다.

온 몸을 비브라늄(마블사내마티유니버스에서 소개된 우주 최강 금속) 갑옷으로 두르고 캡틴 아메리카와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은 그 어떤 히어로의 등장 못지 않게 인상적이었다.

블랙 팬서는 앞으로 마블 영화의 중심 캐릭터로 활약하게 될 거라는 점에서 이번 솔로 영화의 완성도에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작품에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액션 시퀀스도 담겨있다. 체드워 보

스먼과 함께 루피타 뇽오·앤디 서키스·마틴 프리먼·다나이 구리라 등이 출연한다. 2월14일 개봉

◇아카데미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올더 머니'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감독상과 음악상을 받는 데 그쳤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이 오는 3월 열릴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북미 현지에서 개봉한 이 작품은 뛰어난 완성도를 바탕으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단 하나 흠이 있다면 흥행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 정도다(280만 달러).

'셰이프 오브 워터'는 독특한 판타지다. 경쟁적 우주 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미 항공우주 연구 센터에서 일하는 청소부와 괴생명체가 사랑을 나누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06년 '판의 미로-오피라와 세 개의 열쇠'로 극찬을 이끌어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판타지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새 영화를 점도 관심을 끈다. 2월22일 개봉

라일리 스콧 감독의 새 영화 '올더 머니'도 아카데미에서 경쟁할 영화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로 세계적인 대 부호였던 J 폴 게티(1892~1976)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게티의 손자가 유괴되고 범인이 1700만 달러 몸값을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게티가 범인에게 단 한 푼도 돈을 낼 수 없다고 밝힌 이 사건의 내막을 스콧 감독은 거장다운 유려한 연출로 파고든다.

미셸 윌리엄스·크리스토퍼 플러머·마크 윌버그·티모시 허튼 등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2월1일 개봉



영화 '올더 머니'의 한 장면.

◇토리의 새로운 면모.. '12 솔저스' 배우 크리스 헬스워스를 '트르'로만 알았던 관객에게 '12 솔저스(감독 니콜라이 홀시)'는 헬스워스의 또 다른 매력을 보게 할 작품이다.

영화는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군사 작전을 담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2명의 미 특수 부대 요원이 50명의 적군에 맞서 비밀 작전을 펼치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헬스워스는 작전을 이끄는 '미치 넬슨'을 맡았고, 마이클 새너·마이클 페나·트레반트 로즈·윌리엄 피츠너 등이 출연한다. 1월31일 개봉

◇트리의 새로운 면모.. '12 솔저스' 배우 크리스 헬스워스를 '트르'로만 알았던 관객에게 '12 솔저스(감독 니콜라이 홀시)'는 헬스워스의 또 다른 매력을 보게 할 작품이다.

영화는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군사 작전을 담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2명의 미 특수 부대 요원이 50명의 적군에 맞서 비밀 작전을 펼치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헬스워스는 작전을 이끄는 '미치 넬슨'을 맡았고, 마이클 새너·마이클 페나·트레반트 로즈·윌리엄 피츠너 등이 출연한다. 1월31일 개봉

/뉴시스

김동률 '답장' 저력 발휘... 음원 차트 7곳 올킬

뮤지션 김동률(43)이 음원 공개 후 주요 음원차트 1위 탈환으로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공개된 김동률의 앨범 '답장'은 멜론, 엠넷, 벅스,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지니뮤직, 소리바다 등 7개의 음악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12일 오전 9시 기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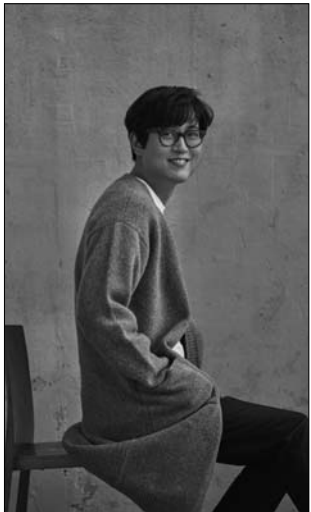
특히 앨범 수록곡 모두가 차트 출세 우기를 기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동률은 지난 11일 3년 3개월 만에 새 앨범 '답장' 앨범을 전격 발표했으며, 각종 음악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답장'은 유명 디자이너 아계하(Agha)의 앨범 커버아트부터 영국에서 런던 심포니와 오케스트라 녹음까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음원 1위 소식과 함께 지난 11일 앨범 발매 전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한 앨범이 사랑을 받고, 그 다음 열



범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의 다음 앨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스무 살의 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김동률의 이번 '답장' 앨범은 6집 '동행' 이후 3년 3개월 여 만의 새 앨범으로 5곡을 선보인다.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타이틀곡 '답장'을 비롯해 'Moonlight', '사랑한다 말해도(Feat.이소라)', '연극', 'Contact'가 수록된다.

'답장'은 1997년 전담회의 '졸업' 앨범 이후 처음으로 5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김동률의 솔로로는 처음이다.

김동률은 지난해 중순 영국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해 주목 받았으며, 신곡 '답장'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현빈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이번 앨범에는 이소라의 듀엣곡이 수록돼 음악팬들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있다.

/뉴시스

12번째 월드 투어 '뮤직뱅크 인 칠레' 3월23일

'뮤직뱅크'가 칠레에서 열린다. 12일 KBS에 따르면 2TV 음악프로 그램 '뮤직뱅크(연출 원승연)'의 12번째 월드 투어 장소는 칠레다.

'뮤직뱅크 인 칠레'는 오는 3월28일 칠레 산티아고 모비스타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뮤직뱅크'의 칠레행은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투어에는 '트와이스' '워너원' '씨엔블루' 'B.A.P' 등이 참석할 예정

이며, 배우 박보검이 진행을 맡는다.

'뮤직뱅크' 월드 투어는 한국을 알리는 뮤직 페스티벌 일환으로 기획, KBS WORLD를 통해 전세계 117개국으로 방송된다.

2011년 '뮤직뱅크 인 재팬'을 시작으로 프랑스·홍콩·인도네시아·터키·브라질·멕시코·베트남·싱가포르 등에서 열렸다.

/뉴시스



영국 4인조 록밴드 '아마존스', 3월 첫 내한공연

영국에서 주목받는 4인조 록밴드 '아마존스(The Amazons)'가 오는 3월3일 홍대 롤링홀에서 첫 단독 내한공연한다고 라이브케이코리아가 11일 밝혔다.

그리스 신화의 여전사 민족에서 이름을 따 만들어진 팀이다.

이름만큼이나 거칠고 야성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관심을 끈다. 90년대 초반 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한 아메리칸 록 밴드 너바라(Nirvana)를 모티브로 삼아 하드 록과 얼터너티브 록을 전전한다.

2014년 결성돼 2015년 데뷔 EP '돈트 유 워너(Don't You Wanna)'를 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